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2화 감옥에 갇힌 빔비사라왕



수 십 길의 성 밑으로 떨어졌던 아기 왕자는 부드러운 야자잎 등이 수십 겹으로 안아주어서, 결국 성 밑의 무성한 잔디위에 부드럽게 착륙해 있었다.

“잘못했다. 내 아들이!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너는 두 번씩이나 죽을 뻔 했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비록 네가 장성하여 나를 해하려 들지라도 나는 내가 저지른 업보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너와 필적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뜻으로 아자세 라는 이름을 주리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자타사트루의 손가락 하나가 부러졌다. 한역으로 그의 이름을 미생원(未生怨)이라 하니, 곧 태어나기 전부터 원수라는 의미에서 이들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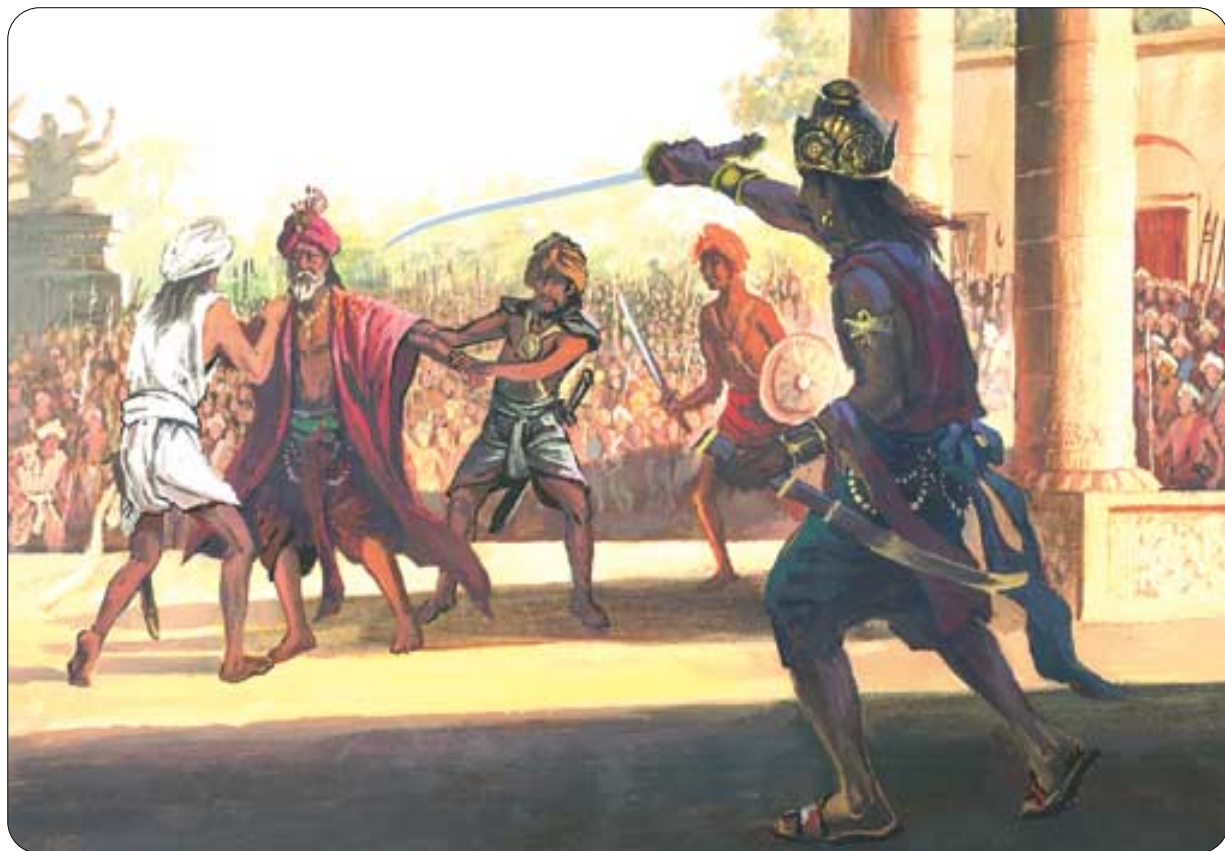
“보라 데바댃타여, 바로 이 부러졌던 손가락이 그날 밤 나를 두 번째로 죽이려고 성 밑으로 집어넣던 부왕의 독심(毒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요. 만약 내가 왕위에 오르면 그 순간 원한의 칼

을 뽑아 억울하게 죽어간 나의 전신인 선인의 복수를 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가 아니겠소. 그때는 한때 나를 가르쳤던 스승이니 내 있는 힘을 다하여 그대를 도울 것이요. 그리하여 새로운 교단을 일으켜서 나의 왕권을 도와주시요.”

그런데 데바댃타와 왕자의 이 엄청난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왕궁의 경비병이 이와같은 사실을 국왕에게 보고하고 말았다. 밀고를 받은 빔비사라왕은 큰 충격으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결국 와야 할 그날이 온 것이었다.

바로 그 다음날, 마가다국의 모든 중신들이 궁전으로 소집되어 들어왔다. 이 자리에서 빔비사라국왕은 왕위를 태자 아자타사트루에게 양위한다는 천천백력 같은 선언을 발표했다.

곧 이어 빔비사라 왕의 명령으로 급히 준비된 신앙의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이 모든 행사는 단호하고 전격적으로 진행되어 중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다.



국 왕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가할 결심을 굳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갑작스러운 결정은 중신들을 경악시켰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요즈음 왕이 국사를 핑계치고 즉림정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벌써부터 태자가 정사를 돌보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잘됐다는 신하도 있었다.

“마가다의 충성스러운 대신들이여, 과인은 이미 늙고 사고하는 바가 옛날 같지 않아서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 이제 마가다는 젊고 힘찬 아자타사트루 신앙을 맞았으니, 모든 중신들은 이 순간 이후부터 신앙에게 충성하고 신앙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마가다를 천축제일의 강국으로 일으키고 신앙이 전륜성왕이 되도록 보필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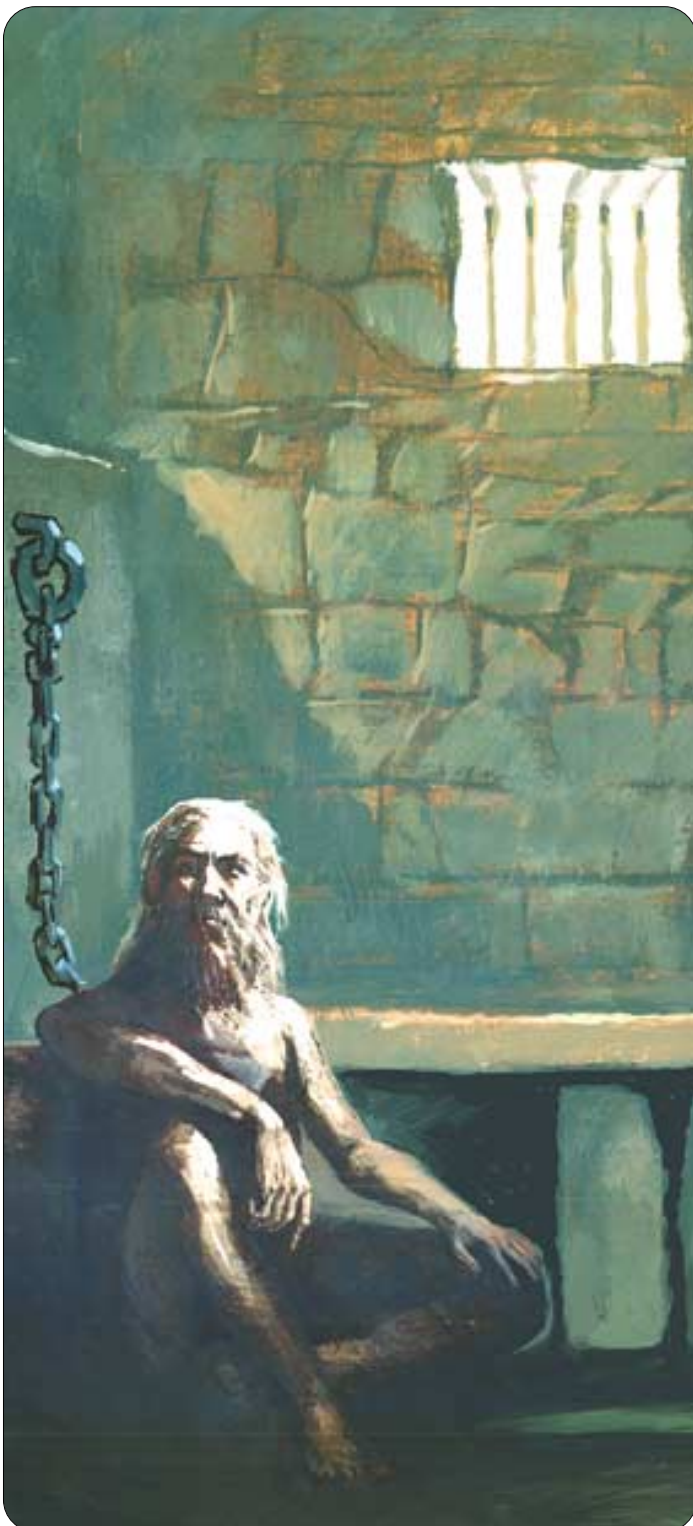
“자, 이것으로 마가다 국왕의 즉위식은 끝났소. 그때는 이 마가다의 국왕이요, 국왕은 국법에 의하여 절대 권력을 보유하므로 나라를 이끌어 성군(聖君)이 되시오. 나는 오늘 중으로 대왕궁을 비워주고 성을 떠날 것이요.”

“부왕이시여, 오늘 중으로 분궁을 비워주고 성을 떠나겠다고 하셨습니까? 부왕께서 이미 왕권을 넘겨주셨으므로 이 나라의 왕

은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명령 없이는 이 성에서 한발자국도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마가다의 국왕으로서 첫 번째의 명령을 내리다. 지금 은퇴를 선언한 전 국왕을 잡아 하옥하라. 전 국왕으로서 나라를 잘못 다스린 그 죄를 몰으려 한다.”

너무나도 놀라운 명령이었다. 부왕은 태자를 위하여 왕위마저 넘겨주었는데 새로 왕위를 이어받은 젊은 신앙은 그의 아버지를 잡아 감옥으로 보내라 한다. 잠시 동안 어리둥절했던 중신들은 신앙이 이런 과격한 명령으로 자신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일단 왕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하고 황궁한 마음으로 빔비사라왕을 잡아 감옥으로 모셔갔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하루나 이틀 후면 옛 왕은 다시 석방되고 나라의 상황(上狀)으로 모셔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대다수 중신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 다음날 내리친 신앙의 명령은 한층 더 강력한 것이었다. 이후 옛 왕을 위하여 어떤 것이든 음식물을 제공하는 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참한다.



천 축제일의 강국 마가다의 대왕으로서 천하에 군림하던 빔비사라왕이었다. 금·보화로 뒤덮인 진실에 천하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들여 앞뒤로 둘러 앉히고 그녀들의 황궁한 체취 속에 잠들던 대왕이었다. 그러나 이제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차디찬 돌바닥위에 썩은 습기를 맡아가며 잠을 청하게 되었다. 빔비사라왕은 이제야 비로소 아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던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와 생각하니 옛 일관의 예언대로 기어코 이 목숨까지 노리고 있는가. 늙은 왕의 눈에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다.

“대왕, 나는 대왕을 낳아준 대왕의 어머니요. 지금의 왕위는 누가 주셨소? 아무리 부왕이 밍다고 한들 자기에게 왕위까지 넘겨준 부왕의 사랑을 모르면 말이오. 부왕과 나는 벌써부터 대왕이 데바댃타의 꼬임에 빠져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고 있었소. 부왕은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지금의 대왕을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목을 잘라 그 반역죄를 천하에 공고할 수도 있었소. 그러나 자비로우신 부왕께서는 자식을 손수 처벌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자식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부왕을 모셔오고 그 앞에 사죄하시오.”

“어머님이 무어라 한들 나의 결심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 쓸데없는 말 삼가시고 어서 태후 궁으로 돌아가세요.”

“대왕마마,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이번에는 대왕께서 감옥에서 신음하시게 될뿐더러 전생의 인연이신 선인의 한을 풀어드릴 수가 없게 되고 말 것이옵니다. 자, 이제는 이 몸을 국사로 임명하시고 지금의 싯타르타를 붓다로 인정하지 말 것이며 제가 믿고 있는 불교 교단을 지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파신(Vipasin), 쉬키(Sikhi), 카나카무니(Kanakamuni), 비사부(Visabhu), 카사파(Kasyapa), 크락찬다(Krakucchanda) 등 과거 육불의 붓다를 믿으며 지금 즉림정사의 싯타르타 태자는 진정한 붓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왕께서 왕권을 굳건히 하시려면 결국 교단과 손을 잡으셔야 하옵니다. 그러나 이곳의 브라만들이나 즉림정사의 교단이나 모두 빔비사라 전왕의 은혜를 많이 입고 있어서 결코 대왕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이 데바댃타에게 힘을 주셔서 저급 붓다의 밑에 있는 나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 대왕의 왕권을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때 붓다는 즉림정사에 새로 모여든 제자들을 가르치며 불교의 전도 사업에 모든 정력을 바치고 있었다. 그런데 마가다의 도성 라즈기르로부터 전해오는 뜬 소문의 진의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믿을 만한 제자를 보내 소문의 내용을 확인시켜 보았다. 그 결과 아자타사트루 왕자가 부왕 빔비사라를 옥에 가두고 왕위를 찬탈했음을 알게 되었다. 붓다는 시바(Sabha, 우리가 사는 세계세계의 일에 관여하는 일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불교의 발전을 가장 크게 후원하며 최초의 사원 즉림정사를 지어 주었던 빔비사라 대왕의 일이었다. 그것도 그의 왕자가 일으킨 패륜(悖倫)적인 정권탈취와 아버지의 감금으로 이어진 것이다. 마음이 불편해진 붓다는 일단의 제자들을 데리고 영축산으로 향했다.

영축산(Grthrakuta), 봉우리 모양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앉아서 쉬고 있는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옛날 스승을 찾아 헤메면서 빔비사라왕과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었다. 그 넓은 벌판은 마치 아름다운 궁중의 웅덩이를 깔아놓은 듯한 토지와 그 사이로 굽어치는 급줄 같은 실개천이 빛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빔비사라왕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감옥이 멀리 보이고 있었다. 붓다는 그 감옥으로부터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을 골라 자리를 잡고 앉았다.

붓다와 그의 제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차가운 감방 안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빔비사라왕의 옥사를 향하여 그들의 간절한 기원을 보내고 있었다. 패륜극(悖倫劇)을 당하고 좌절한 옛 왕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붓다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마치 붓다께서 바로 옆에서 앉아 법륜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분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육중의 빔비사라왕은 너무나 이상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지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감방의 저 높이 풀린 창문을 통하여 멀리 영축산을 보았다. “아... 아 그곳엔 부처님이 서 계셨다. 저 멀리 영축산의 산정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 저들은 과연 누구일까? 아 저이는 틀림없이 붓다와 그의 불자(佛子)들이다. 붓다께서 내가 이곳에 감금당해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오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먼 곳에서 속삭이는 말씀이 어떻게 그처럼 뚜렷하게 내 귀에 들리는 것일까?”

※ 그간 인과리에 연재했던 '부처님'은 본지 개편관계로 금주에 막을 내립니다.

